



혼다코리아의 어정쩡한 '사과'... 지난해 녹 발생 파문 260억 규모 '서비스'

지난해 '올 뉴 CR-V' 신차 녹·부식 발생 올해 1월 소비자원 현금 보상 판정

HONDA 혼다코리아가 지난해 큰 논란이 됐던 '올 뉴 CR-V' 신차 녹 발생에 대해 5개월만인 12일 '고객 서비스'이라는 이름의 대책을 발표했다.

혼다코리아는 이날 "신차에 녹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 차량의 기능과 안전성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고객님들께 막연한 불안감을 드린 점은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객 서비스'로 2017년식 CR-V, Accord 2.4 및 3.5, Civic(2017년 8월 31일까지 신규 등록)을 보유한 고객에게 60만원 현금 지급, 녹 제거 및 방청 서비스, 일반보증 2년 연장 쿠폰, 오일교환 2회, 필터교환 1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2014년 9월1일~ 2017년 8월 31일 신규 등록된 CR-V, Civic, Accord 보유 고객에게는 30만원 현금 지급, 녹 제거 및 방청 서비스, 일반보증1년 연장 쿠폰, 오일교환 2회, 필터교환 1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의 녹 발생에 대해서는 "차량 표면 녹은 안전,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실험결과를 근거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녹 발생 자체가 차량 하자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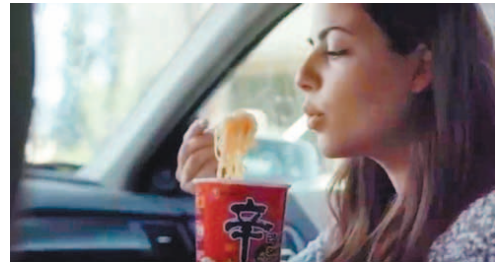
또한 올해 1월 한국소비자원의 현금보상 결정도 "객관적, 과학적 입증 없는 추정과 개인연설에 기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고 밝혔다.

혼다의 5세대 '올 뉴 CR-V'는 지난해 7~8월께 국내 CR-V 온라인 동호회와 중고차 거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신차 녹 발생 및 부식 결함이 제기됐다.(스포츠동아 2017년 8월22일자, 9월6일자 보도)

혼다코리아는 당시 발생 원인을 찾는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요청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구글이 제작한 신라면 광고 유튜브 조회 500만건 육박

구글과 농심이 공동 제작해 최근 공개한 해외 신라면 광고(사진)가 유튜브에서 조회수 500만건에 육박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신라면을 끓여 먹는 소리만을 담은 새로운 콘셉트로 12월 20일 유튜브에 처음 공개했다. '맛있는 신라면의 소리'(The Sound of Delicious Shin Ramyun)라는 제목으로 일상에서 신라면을 즐길 때 나는 소리를 경쾌하게 담은 것이 특징이다.

도마와 칼, 젓가락을 두들기는 경쾌한 박자에 보글보글 끓으며 후루룩 먹는 소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마치 난버벌 퍼포먼스인 난타 공연을 보는 것 같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웃놀이에 불꽃쇼까지...명절엔 리조트가 즐겁다



이번 연휴는 지난해보다 짧긴 하지만 그래도 4일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과 설 연휴가 겹쳐 휴가를 즐기면서 올림픽 열기도 느낄 수 있다. 특히 일과 휴식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벨'과 심리적 만족을 우선시하는 '가심비'가 중시되면서 설 연휴도 가족, 연인, 친구들과 여유로운 휴식에 대한 욕구가 높다. 이런 흐름에 맞춰 전국 주요 리조트들은 연휴 방문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내놓았다.

하이원리조트, 설 차레상·웃놀이 등 마련
대명리조트, 오션베이 이용권·경품 증정
한화리조트, 명절 '웃도 나와라' 이벤트



설을 맞아 15일부터 연휴 기간 동안 개띠 고객이거나 가족 삼대가 함께 방문하면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명리조트 천안의 오션파크 실내 풀장. 올해 설 연휴는 예년보다 기간도 짧고, 동계올림픽 기간과 겹쳐 있어 국내 리조트 등에서 가족들과 명절 연휴의 여유로움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다. 사진제공 | 대명레저산업



● 불꽃쇼 이틀간 특별 편성 '하이원 리조트'

설날 당일인 16일 아침 리조트 고객을 위해 차레상을 준비한다. 리조트 고객이면 누구나 이날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에 마운틴콘도 C동 1층에 마련한 차레상에서 차레를 지낼 수 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웃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등 전통놀이 체험마당을 진행한다. 15일부터 17일까지 오후 2시30분에는 벨리 스키하우스에서 '웃놀이 가족대항전'이 열린다. 참가 신청은 현장에서 선착순 8가족만 받는다.

이밖에 매주 토요일 오후 8시50분에 공연하던 불꽃쇼도 15일과 16일 특별 편성했다. 드림퍼포먼스 등의 사전공연과 함께 강원랜드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 삼대가 오면 특별 할인 '대명 리조트'

대명리조트 거제마리나는 15일부터 17일까지 리조트 내 몬테로소, 풀버섯 키친, 돌체나 한식당, 브리즈 가든 등 레스토랑을 이용하거

나 마리나베이를 이용한 고객에게 미니 웃놀이 세트를 가족당 1개씩 선착순 증정한다. 16일 체크인하면 숙박권 등 경품 쿠폰이 들어있는 포춘쿠키를 제공한다.

솔비치 호텔&리조트 양양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베누스광장에서 민속놀이 체험존을 운영한다. 이밖에 대명리조트 천안은 15일부터 오션파크에서 삼대가 함께 오면 최대 6인까지 50% 할인하고, 개띠 고객은 본인 무료와 동반3인까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 로비 뽀로로 포토존 '한화 리조트'

설악 쏘라노에서는 16일 전통음료 시식과 경품이 있는 떡메치기 이벤트를 실시한다. 16일과 17일에는 웃을 던져 웃이나 모가 나오면 선물을 주는 '웃도 나와라' 이벤트도 열린다. 15일부터 18일까지 쏘라노 로비에서는 가족 방문객을 위해 뽀로로 포토존을 운영하고, 17일과 18일에는 클래식 공연도 열린다.

설악 워터피아에서는 16일 설날 '무술선 3행시' 이벤트를 진행한다. 물풍선 게임, 아쿠아로빅, 사진 무료 인화 서비스인 해피 포토제니 등의 이벤트를 2월 말까지 실시한다. 한화리조트 경주는 16일 고무신던지기, 제기차기, OX퀴즈, MC를 이겨라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18일까지 전국 12곳 한화리조트 로비의 소망 나무에 소원을 적어 걸면 추첨을 통해 60명에게 럭키 박스와 황금 강아지 한 돈을 증정한다.



● 직계가족 동반 리프트권 우대 '곤지암 리조트'

15일부터 17일까지 '곤지암 설맞이 가족 한마당'을 개최한다. 저녁마다 EW빌리지 그랜드볼룸 등에서 마술 공연과 추억의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한다. 리조트 로비에서는 '스스로 연주하는 피아노' 공연도 열린다. 곤지암 리조트는 직계가족 동반 시 스키장 리프트권 우대 혜택을 제공해, 명절 연휴 가족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2대 가족

동안 미타임팩트 리프트권 발권 시 최대 35%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 스파 입장객 럭키 즉석복권 '리솜 리조트'

스파 입장객을 대상으로 '럭키 즉석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안면도 리솜오션캐슬, 덕산 리솜스파캐슬, 제천 리솜포레스트 등 리솜 전 사업장의 스파 시설 매표 시 즉석복권을 제공하며 바로 당첨 확인이 가능하다. 1등 리솜 리조트 객실 이용권(6명)을 비롯해 2등 리솜리조트 스파 무료 이용권, 3등은 리솜리조트 카페 리솜 커피 이용권, 4등은 리솜리조트 스파 50% 할인권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18일까지 실시한다.

충북 제천의 리솜 포레스트에서는 가족과 북주머니 양궁놀이, 웃놀이,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와 '소원나무 꾸미기' 등을 즐길 수 있다.

● 리프트 무료 탑승 이벤트 '오코밸리 리조트'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민속놀이 이벤트를 잔디광장에서 진행한다.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대형 웃놀이 가족대항전도 열린다. 스키장에서는 '리프트 무료 탑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종합매표소에서 1일 1회에 한해 리프트 1회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장비 착용시에만 리프트 탑승이 가능하며 렌탈 비용은 별도이다.

김재복 기자 oldfield@donga.com



정수정 이랜드월드 대표(왼쪽)가 협력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 이랜드월드

이랜드월드, 협력업체와 악수

정수정 대표, 협력업체 방문 개선점 청취

이랜드월드가 동반성장 및 상생경영 실현에 나섰다. 정수정 대표이사가 9일 협력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대표는 생산 실무를 담당하는 생산 책임자와 함께 현장에서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즉각 조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청취했다.

이랜드월드는 측은 "패션사업 특성상 많은 협력업체와 함께하기에 상호 간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다"며 "오랜 시간 함께해 온 협력업체가 '함께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 방문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iyaj@donga.com

쌍용자동차, 마히드라와 G4 렉스턴 인도 수출

쌍용자동차가 대형 프리미엄 SUV G4 렉스턴을 인도로 수출해 현지에서 조립 생산한다고 12일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최근 인도 마히드라 & 마히드라(이하 M&M)와 G4 렉스턴의 인도 현지 조립생산을 위한 제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중에 M&M 차관 공장에서 생산에 들어간다. 쌍용자동차는 이번 M&M과의 수출 계약을 통해 날로 커지는 인도 SUV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글로벌 판매 물량 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M&M은 G4 렉스턴의 본격적인 생산 및 론칭에 앞서 8일(현지시간) 인도 델리 모터쇼를 통해 G4 렉스턴을 인도 시장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원성열 기자



SK텔레콤은 지난 5년간 T맵(네비게이션 앱) 빅데이터를 분석해 설 연휴 교통 상황을 예측해 발표했다. 서울-부산의 경우 상하행 모두 16일이 귀경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며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제공 | SK텔레콤

"16일 피해야" 빅데이터로 본 설 교통상황

설 귀경·귀성길 정체 기간 분석 발표

설 연휴 설레지만, 교통체증은 항상 걱정이다. 이럴 때 모바일 네비게이션(이하 내비) 서비스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예측한 교통상황을 참고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2014년부터 지난해 추석까지 명절 연휴 카카오내비 빅 데이터를 분석해 예측한 14일부터 18일까지의 교통상황을 발표했다. 귀성길의 경우 서울-부산, 서울-광주, 서울-

강릉 3개 구간 모두 14일 밤이나 15일 저녁 이후 출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4일 오전부터 오후 5시, 15일 새벽부터 정오 중에 출발하면 교통체증을 겪을 것으로 예측했다.

설 당일인 16일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하행 모두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귀경과 나들이 차량이 겹치는 시간대라는 분석이다. 귀경길은 17일 밤과 18일 오후 늦게 출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부, 호남, 영동 등 3개 구간 모두 17일

보다는 18일이 다소 원활할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이 5년간 T맵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선 14일 오전 10시 이전이나 15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가 귀성길에 나서기 좋은 시간대로 나타났다. 서울-부산의 경우 상하행 모두 16일이 귀경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며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광주 귀성길은 14일 오후 3시부터 15일 오후 2시까지, 귀경은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영동고속도로는 1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정체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